

中國語「四聲」에 관하여

孔 在 錫

1. 序 言

中國語의 여러가지 特性중 하나는 聲調를 論하는 것이 常例이다. 一般的으로 聲調言語란 한 音節의 音位의 高低가 서로 달라 言語의 意味를 分化시키는 作用을 하는 言語들로 이중에서 가장 顯저한 것이 中國語인 것이다. 聲調言語에 대한 研究는 近代 西歐言語學이 發展되어 그 에 힘입은바 많지만 中國의 경우 이미 南北朝時代(420~589)에 發端이 되어 傳統的인 中國聲韻學의 主軸을 이루어 오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中國語를 律動的이고 音樂的인 멜로디를 갖고 있는 言語라고 하는 까닭은 바로 이 言語가 聲調를 가지고 그러한 聲調의 區分이 聽覺에 顯저하게 作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過去의 中國文學중 韻文이 盛行한 까닭도 여러가지 原因들이 있지만 中國人들의 言語가 古代로부터 聲調言語였기 때문이며 그들은 聲母보다 韻母를 더욱 重視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¹⁾

近來 中國語 教育에 있어 「四聲」을 強調하여 論하고 있는것은 事實이나 四聲에 대한 理解에서 그 歷史的인 變遷過程을 忽視하고 더욱 過去의 四聲과 現代의 四聲이 同一한 것으로 看做하기도 하여 四聲에 대한 그 變遷過程을 올바르게 理解를 함으로써 中國語教育에 一點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論하게 된 것이다. 더욱 우리나라에서는 漢字를 借用하여 中世國語에 四聲이 論議되고 있어 이것 또한 中國語의 四聲과 많은 混

(1) 唐蘭：中國文字學 p. 26. 中國原始語音의 推測.

同)이 되고 있기도 하다.

言語란 一般的으로 單語(詞)가 語順에 依하여 配列되어 意味를 傳達하는 것으로 늘 말(입)과 귀사이의 相互作用이 主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中國語의 聲調는 다른 言語에 비하여 현저하게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聲調는, 勿論 一般言語學에서 音聲學의 첫째 對象이 되는 것이지만 中國語의 경우 오히려 音韻論的 比重이 크다고 할수 있다. 그理由는 聲調가 聲母와 韻母 못지 않게 言語作用에 있어서 同等한 地位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聲調가 意味分化뿐만 아니라 句와 文을 이룰때 詞調와 句調에도 相互 影響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即 聲調가 하나의 音素로서의 機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聲調를 理解함에 있어 한가지 留意를 해두어야 할것은 現代中國語가 되기 까지 中國人들은 그들의 文字로 漢字를 使用하여 온것이다 이 漢字는 勿論 그 始點이 言語에 비하여서는 훨씬 後起된 것이라고 하지만, 初民社會의 人類들이 言語를 通하여 意思를 傳達한것은 事實이나 文字의 使用도 言語보다 못하지 않는 機能을 가지고 온것이고 더욱 漢字는 圖畫的인 符號의 作用으로 부터 始作된것이 B.C.4~5천년경부터라고 하고 있어 이미 오랜 歷史를 가지고 發展을 하여 온 것이므로 言語와 文字사이의 相互關係에서 다른 音聲文字에 비하여 言語에 많은 影響을 준 特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中國語에 대한 연구는 그들이 使用하고 있는 文字와의 關係에서 考究되어야 할 것이다. 現代의 音韻學者들은 (더욱 西歐言語學의 影響을 받은) 中國文字의 特性인 漢字의 文字學的인 考究가 缺與되어 있고 表音文字만을 대상으로 한 言語의 研究로 中國語의 여러가지 特性들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即 오늘날 中國語를 研究하자면 言語와 文字와의 關係를 考慮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中國語를 理解할 수가 없는 것이다. 即 하나의 例를 들면 人字는 人字로 부터 分化發展된 것이고 이것은 音韻學的으로는 究明을 할수 없는

것이고 또 殷과 衣字가 同一한 語音에서 分開된것은 音韻學에서만 究明될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言語와 文字는 相互 緊密한 關係를 가지고 現代의 中國語로 發展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점이 中國語의 尤구한 歷史性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聲調를 理解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特性들을 念頭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 「四聲」이란 명칭은 中國의 南北朝時代(386~581)부터 使用하기 始作하여 現代까지 近 1,500년간 그대로 使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李朝 世宗大王의 訓民正音創制以後에 四聲이란 名稱을 써오고 있다. 이 「四聲」이 가지고 있는 뜻은 廣範한 것이다. 이에 四聲에 대한 區分과 歷史的인 變遷과 含義를 明確히 認識하여야 才로 中國語의 面貌를 理解하게 되고 그 影響等을 잘 알수 있을 것이라 믿는 바이다.

2. 四聲의 名稱

四聲이란 名詞는 中國語를 論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있고 늘 써오는 用語이다. 漢字의 單字의 意味로 보면 四聲이란 네가지 소리(聲)란 뜻이다. 여기 聲字가 意味하고 있는 뜻은 限定된 聲調만을 指稱한다고 보겠다. 그러나 聲字의 뜻은 廣範하게 使用되고 있으니 聲字는 上古에 일찍 쓰여 졌고 그 本意도 소리란 뜻으로 귀로 들을수 있는 音을 지칭한 것이다. 甲骨文에는 言, 音, 聲이 同意로 쓰이고 說文에는 「聲音也, 从耳聲聲聲籀文聲」이라 하였고 또 「音聲也, 生於心有節於外謂之音, 宮商角徵羽聲, 絲竹金石匏土草木音也. 从言含一, 凡音之屬皆从音.」이라 하여 音과 聲은 相互 通用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區分할 수 있는 것은 音은 사람과 物件의 音聲을, 聲은 音樂의 音을 뜻하였던 것으로 이미 聲調에 대한 인식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외에 通用되는 單字로 韻이 있다. 聲·韻·音이 세글자는 中國語學에서 많이 混同되어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尙書舜典에 「詩言志, 歌永言, 聲依永, 律和聲, 八音克諧, 無相奪倫」이라 한바 言, 聲, 音을 이미 區別함이 있었던 것이라 볼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區分이 오늘날과 같이 音素와 音位의 區分은 아니고 오직 聽覺에 依한 區分을 簡略히 나타내고 있는것 뿐이다. 韻字는 比較的 後起된 글자로 晋代(245~419)에 비로서 나타났다고 본다.⁽²⁾ 그후에 이 聲韻音 三字는 密接하게 聯關을 갖고 中國語學에서 많이 混淆되어 온 것이다. 現在 通用되고 있는것은 一般的으로 한 글자의 音을 聲과 韻으로 나누고 다시 韻에는 聲調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理由는 漢字가 갖고 있는 特性의 하나로 意味의 分化和 言語의 變化를 異字로 나타내기 때문인 것이다. 語·文의 이러한 問題는 字義와 字形과의 關係에서 다루어질 성질이라 論外로 하고 여기서는 다만 이 三者의 聯關性和 相異한 점을 때에 따라 그 意味를 잘 파악하자는 것만을 말한 것이다.

四聲이란 名稱은 4개의 서로 다른 소리가 아니라 同一한 音이나⁽³⁾ 그 區分이 되는 경우를 指稱하여 定해진 것이다. 各已 다른것이 아니라 다만 音의 高低長短의 區別을 過去人들이 붙여 놓은 것이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는 4개의 서로 다른 聲調를 나타내는 말이라 보고 있다. 四聲의 聲과 聲調는 同一한 意味를 지닌 것이다. 또 聲調란 名詞도 경우에 따라 聲자가 音聲의 聲을 指稱하고 調자만이 區分의 要素가 되는 名詞라고 볼수 있다. 왜냐 하면 聲調라는 말 이외에 字調, 腔調, 音調라는 用語가 함께 쓰여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用語들이 결국은 모두가 聲調를 지칭하고 있는 것만은 事實이다.

四聲과 聲調는 廣義로 同一한 意味이나 四聲은 過去에서 부터 沿用되어 오는 名稱이고 聲調란 民國以後에 多用한 名稱인 것이다. 勿論 聲調

(2) 林尹：中國聲韻學通論，p. 7.

(3) 聲母韻母가 同一한 音.

는 民國年間に 들어와 西歌言語學의 影響으로 中國語의 聲調가 上古音 研究에 큰 役割을 하게 되고 強調되어 中國語의 한 特性으로 脚光을 받게 되어 많이 불려진 것이다. 그러나 過去의 中國人들이 聲調란 말을 쓰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이미 隋代의 陸法言은 그의 切韻序(607)에 「古今聲調既自有別, 諸家取捨亦復不同.」이라 하여 聲調란 말을 썼던 것이다.⁽⁴⁾

四聲의 名稱이 언제 始作되었나 하는것은 韻書에서 찾아 볼수 있으니 漢代字書類가 일찍 있었으나 韻書는 魏代(386~581) 李登의 聲類와 呂靜의 韻集이 그 始初라고 한다. 이 韻書들은 五音에 依하여 編排되었던 것이고 陸法言의 切韻 以前에 編纂된 韻書中 四聲의 名稱이 붙혀진 韻書를 보면 周彥倫의 四聲切韻(見南史), 沈約의 四聲譜(隋志 一卷), 王斌의 四聲論(見南史), 張諒의 四聲韻林(隋志 二十八卷), 劉善經의 四聲指歸(隋志 一卷), 夏侯詠의 四聲韻略(隋志 十三卷) 등이 보인다.⁽⁵⁾ 勿論 이러한 冊들은 現存되지는 않지만 이미 그 당시 (齊代)에는 四聲이 크게 流行되어 韻書를 作함에 四聲에 依據하여 韻目字들을 編排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面이 또한 聲調 研究가 發興한 初期의 現象이라고 넉넉히 믿을 수 있는 것이다.

3. 四聲의 成立

中國語 聲調의 始點에 관하여서는 모호하여 잘 알수가 없다. 지금 推測할 수 있는것은 中國의 上古 言語로 부터 聲調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⁶⁾

이는 中國語의 共通母語를 中心으로 分岐된 다른 語族들의 言語에서도 聲調가 있음이 밝혀졌고 이미 中國의 上古期의 韻文에서도 聲調를 認

(4) 陸法言：切韻序(切韻殘卷 第二種 敦煌本).

(5) 謝啓昆：小學考.

(6) 參照下節上古聲調.

識하고 區分하였던 점을 볼수 있다. (7)

上節에서 四聲을 利用한 韻書를 舉例하였지만 上古聲調에 對한 明確한 記錄들은 아직 찾아 볼수가 없고 다만 南朝時代의 四聲과 現代의 方言의 聲調들을 資料로 上古聲調를 理解하게 되는 것이다. 中國에서 聲韻學이 發端되어 近世까지 傳統的인 論法으로는 四聲이 齊代의 沈約(8)에 依하여 發明된것으로 알려졌던 것이다. 이 點은 오늘날 理解를 달리 하여 ‘四聲’의 名稱은 이 時期에 發明된 것이나 聲調는 이미 있었던것이라 하는 것이다. 卽 中國의 四聲(聲調)이 沈約등에 依하여 만들어 졌다는것은 아니다.

그러면 四聲이 어떻게 南朝時代(420~589)에 發興되었나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聲韻學이 南朝時代 盛하게 된것은 佛敎의 影響을 많이 받은 理由라고 보고 있다. 佛敎가 中國에 들어온것은 대개 漢武帝때(A.D. 25-57) 西域을 征服한 以後로 漢明帝八年(A.D. 65)에 蔡愔을 파견하여 西域에서 佛法을 求하여 2年후에 돌아왔고, 그때 西域의 僧侶 摩騰과 竺法蘭이 佛經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다. 이것이 佛敎 傳入의 始初이고 그후로 佛經의 翻譯이 크게 流行하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 北魏宣武帝는 親히 佛書를 講하였고 南朝梁武帝는 佛家에 入身까지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점으로 미루어 南朝時 佛學의 氣風은 大端하였던 것이니 當時의 文士들이 佛經에 심취하였고 佛經의 翻譯에 있어 自然 印度의 ‘聲明論’이란 韻學의 影響을 받았던 것이다. 聲明論은 印度 古代의 三聲으로 自然 佛經의 轉讀에 이 영향이 있었던 것이다. (9) 이러한 佛經轉讀은 本

(7) Karlgren: Philology and Ancient Chinese, Chpt. 1.

(8) 沈約(441-513), 齊나라에서 四部圖書를 校하고 羣書에 能通하였고 梁武帝와 親하였고 著書로 晉書, 宋書, 齊記등이 있고 四聲譜를 지어 「八病說」을 내어 詩體의 嚴整을 꾀하여 詩의 聲律說을 이룩하였다. 이 四聲譜는 現存하지는 않으나 四聲을 文章에 利用한 最初의 著作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9) 陳寅恪: 四聲三問, 清華學報 9卷 2期.
張世祿: 中國音韻學史 上, p.153.

來 聲調가 있던 中國人들에게 明確한 區分과 活用の 方法을 알려주게 되었던 것이니 여기서 四聲의 名稱이 부여된 것이라 볼수 있다. 即 上古로부터 지녀온 聲調중 區分이 容易하던 入聲과 相對되는 다른 聲調(平聲)를 平上去의 三聲으로 區分하여 入聲을 合하여 四聲으로 確定한 것이라 본다. (10)

또한 平上去入의 4개의 名稱은 그 당시 이들 글자의 調價를 代表하여 부쳐진 것이라 본다. 이러한 理由는 梁武帝가 周顒에게 四聲에 관하여 물었을때 「天子聖哲」이라 답하여 이 네글자가 바로 調價를 나타 내었던 것이니 (11) 이러한 例字와 同一한 것이라 할수 있다.

史書에 나타난 四聲은 南史에 실려 있는 陸厥傳과 沈約傳 庾肩吾傳에 모두 四聲을 말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四聲은 이미 그 當時에는 크게 流行되었던 것이다.

南史陸厥傳：「永明末盛爲文章。吳興沈約陳郡謝朓琅邪王融，以氣類相推轂。汝南周顒善識聲韻，爲文皆用宮商，以平上去入爲四聲，以此制韻，不可增減，世呼爲永明體。」

南史沈約傳：「約撰四聲譜，自謂入神之作。武帝雅不好焉。嘗問周捨曰：何謂四聲。捨曰：天子聖哲是也。」

南史庾肩吾傳：「齊永明中，王融謝朓沈約文章始有四聲，以爲新變，至是轉拘聲律。」

以上에서 보면 齊 永明 年間(483~493)에 四聲이 一般 文章에 應用될 만큼 盛行된 것을 말해주고 있다. 沈約을 中心으로 四聲을 應用하여 聲律論을 展開하여 文學에 있어 하나의 轉期를 마련하게 된 것이며 이들 文士들은 그 當時의 社會的인 環境하에 佛經에 이미 심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自然 聲調를 活用하는 方法을 發見하게 된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10) 張世祿：上揭書，p. 149.

(11) 梁書，沈約傳：嘗問周捨曰：何謂四聲，捨曰：天子聖哲是也。

四聲을 文章에 應用한 것은 沈約의 四聲譜로 이것은 音韻學에 活用한 것이 아니고 作詩上 聲律의 規範이 된 것이다. 이와같이 永明間에 四聲의 名稱이 平上去入으로 固定이 되고 그 이전에 使用되던 宮商角徵羽의 五音이⁽¹²⁾ 齊梁以後에는 變化되어 平上去入으로 代替된 것이다. 이것은 聲調의 體系를 固定시키는 轉換期가 된 것이다.

聲調에 대한 分別은 이미 齊梁以前에 있었으나 四聲으로 確定을 한 것은 齊梁間의 일이다. 最初의 韻書인 李登의 聲類나 呂靜의 韻集은 五音으로 文字를 統括하였던 것이나 齊梁間에는먼저 四聲에 基準하여 韻書들이 모든 文字를 統括한 것이다. 여러 韻目을 四聲에 基準하는 方法을 얻게 된 것은 聲韻學에 많은 簡便한 方法을 남게 한 것이다. 이것이 또 齊梁 人들의 一大 發明이며 貢獻이라 할수 있는 것이다. 그 후로 모든 韻書 들은 전부가 四聲에 依據하여 編排되고 있는 것이다.

4. 四聲과 聲調

앞에서도 말 하였지만 四聲은 4개의 聲調를 지칭한것으로 混用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明確히 區分을 해야 할것은 過去의 四聲(齊梁間에서 元代까지 그리고 古音을 論할때의 四聲)과 오늘의 四聲과는 서로 다른 점이 많은 것이다. 過去의 四聲은 平上去入으로 나뉘었고 오늘의 四聲은 陰平, 陽平, 上, 去의 4으로 수와 명칭은 同一하나 聲調의 調價는 서로 다른 것이다. 이것은 語音의 變化로 聲調도 自然 變化를 한것이고 各地의 聲調가 各已 다르게 된 것이다. 勿論 現在의 四聲이 過去의 四聲으로 부터 變遷하여 온 것이므로 그 系統을 이어 오고 있는 것은 事

(12) 五音(五聲) : 音樂의 樂音으로 宮商角徵羽로 區分되어 쓰여진 것이고 이미 爾雅의 釋樂篇에 나오고 漢代通用되던 것으로 樂律上의 高低를 나타낸 것으로 音의 輕重 疾遲 長短과 관계가 깊었던 것이다. 五行說과 關係가 있으며 管子에서는 五物의 音聲이라 하여 牛豬 등 動物의 소리에 比하였다. 또 音韻學에서는 聲類를 表示하는 牙舌齒唇喉를 지칭하여 쓰기도 한다.

實이지만 調價는 서로 큰 差異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다만 그 調類 名稱은 그대로 活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現代의 四聲과 過去의 四聲이 同一한 것으로 많이 混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中國의 四聲과 15세기 韓國語의 四聲과도 명칭은 같으나 調價는 크게 다른 것이다.

現代聲調를 論할때 다시 論하겠지만 어떠한 言語이든 목소리가 高低의 音位를 가지고 말이되어 하나의 의미를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소리의 高低의 변화를 聲調라 칭하고 이러한 聲調가 하나의 音節마다 서로 달라서 意味를 分化시킬 때 이러한 言語를 聲調言語라 말한다. 中國語는 代表的으로 이러한 辯別的 資質이 發達한 言語인 것이다. 中國語에서 이러한 聲調를 表示하고 있는 말들을 살펴보면 聲, 音, 腔, 調, 氣 등을 쓰고 있다.

또한 聲調는 元音의 高低라고도 하나 全部가 다 그런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音節內에도 있고 帶音部分에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an]이란 音의 聲調는 [a]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n]에도 있는 것이다⁽¹³⁾

一般的으로 聲調言語에서 聲調란 輔音과 元音과 同時에 있는 것으로 全體의 組織上 聲調도 하나의 音素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過去의 四聲을 論한것은 이러한 面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過去의 四聲은 音樂의 音階와 같은 聽覺的 現象만을 느껴 論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聲調에 關하여서는 後文의 現代聲調에서 다시 論하게 될 것이다.

5. 上古 聲 調

中國語가 上古로 부터 聲調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事實이고 四聲이 發端된 齊梁以前에도 聲調에 대한 活用이 있었던 것이다.

(13) 趙元任：語言問題，四聲.

그러나 그 聲調의 調類는 어떠한고 調價가 어떠한 것인가는 잘 알 수가 없다. 上古聲調에 관한 明確한 記錄은 아직 없고 다만 中古期의 聲調와 現代方言의 聲調를 資料로 하여 上古時代의 聲調를 推測하는 것이다. 中國의 音韻學이 주로 中古時期의 韻書의 制作으로 부터 確實한 根據를 갖기 시작하여 發展되어 오던중 清代에 들어와 考證學의 影響으로 古音研究가 活發히 展開되어 한갈로 清代는 聲韻學家들이 古音을 研究한 全盛期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清代의 業績을 中心으로 近代에 와서는 西歐言語學의 影響을 받아 中國語의 母語와 系統을 같이 하고 있는 漢藏語族들과의 比較研究가 이루어져 더욱 聲調言語에 대한 特徵들이 들어나고 있다.⁽¹⁴⁾ 漢藏語族에 屬하는 暹羅語(타이) 西藏語(티베트)등과 共通的인 特徵들을 찾아 내고 있고 또 漢語와 親屬관계가 가까운 台語系統의 言語의 聲調와 中古漢語의 聲調와 類似點이 많이 發見되고 있다.

古代聲調를 研究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基本資料로 쓰여진것도 韻文으로 詩經이 代表되고 있다. 瑞典의 漢學者 高本漢(Karlgren)은 詩經의 韻을 研究하여 中國古音研究에 貢獻을 하였고 그 影響을 받아 董同龢는 새로운 古音研究의 成果를 거두었던 것이다.⁽¹⁵⁾

清代에 들어와 古音研究의 發端은 陳弟를 이은 顧炎武로 그의 音學五書는 後에 많은 影響을 준 것이다. 顧炎武는 聲調에 關하여 서도 注意를 하였던 바 그의 音論에서 四聲並用說을 主張하여 古代에는 四聲이 있었으나 不分되었다고 하여 많은 誤解를 일게 하였다.⁽¹⁶⁾ 顧炎武의 四聲一貫說에 反對한 사람은 段玉裁, 王念孫, 江有誥等으로 이들의 古音研究는 좀더 進步된 方法을 써서 古代의 聲調와 後代의 聲調와 不同함을 알

(14) Karlgren: 中國音韻研究(中譯本), 藏語與漢語.

(15) Karlgren: 高本漢詩經注釋(董同龢譯).

(16) 顧炎武: 音論.

「四聲之論, 雖起於江左, 然古人之詩已有, 遲疾輕重之分, 故平多韻平; 仄多叫仄, 亦有不盡然者, 而上或轉爲平上, 入或轉爲平上去, 則在歌者之抑揚高下而已, 故四聲可以並用.」

있던 것이다. 段玉裁는 그의 六書音韻表의 古四聲說에서 上古에는 三聲만이 있었다고 主張하고 있다.⁽¹⁷⁾ 段玉裁에 比하여 上古의 三聲說을 強力히 主張한 사람은 孔廣森이다. 그는 古聲調가 平上去였고 入聲이 없다고 하였던 것이다.⁽¹⁸⁾ 段玉裁 孔廣森 이외에 聲調研究에 있어서 上古聲調와 中古聲調의 系統을 이어주는데 貢獻한 사람은 江有誥⁽¹⁹⁾이다. 그는 唐韻四聲正이란 冊을 써서 古音의 各字가 모두 四聲이 있다고 主張하였으나 每部에 四聲이 다 있는것은 아니고 몇가지 部는 平上去만 있고 入聲이 없고 어떤것은 去, 入이 있고 平上이 없고 다만 平만이 있고 上去 入이 없는것이 있다고 하였다. 또 다만 入만이 있고 平上去가 없는것도 있다고 하였다. 同時에 王念孫도 上古에 四聲의 分別이 있었다고 主張하였다. 그는 一類와 二類로 古韻部를 나누었고 一類는 平上去만이 있고 또 二類는 四聲을 具備하고 있었다고 하였다.⁽²⁰⁾ 이러한 主張들은 모두가 清代 古音研究에 큰 成果라고 할 수 있다.

清代의 古音研究를 集大成한 사람은 章炳麟⁽²¹⁾으로 그는 王念孫 孔廣森說에 根據하여 平上韻과 去入韻을 完全히 分開하여 古韻을 23部로 나누었고 그의 學說은 다시 그 弟子인 黃侃⁽²²⁾에 依하여 完成되었고 그는 平聲과 入聲의 兩類로 大分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區分하게 된 것은 反切下字를 開合과 四聲으로 區分하여 考究한 것이고 入聲이 陰聲과 陽聲의 中間에 介在한다고 본 것이다.

論據들은 모두가 古代의 韻語가 叶韻되는 것을 中心으로 考察한 것이다. 오늘날 入聲이 消失되어 그 흔적은 다만 韻書에 남아 있지만 上古

(17) 古四聲不同今韻，猶古本音不同今韻也。攷周秦漢初之文，有平上入而無去。洎乎魏晉上入聲多轉而爲去，平聲多轉爲仄聲，於是乎四聲大備而與古不侔。」

(18) 孔廣森：詩聲類。

(19) 江有誥：音學十書。

(20) 王念孫：古韻譜。

(21) 章炳麟：國故論衡，文始。

(22) 黃侃：音略「古韻表」。

의 聲調는 가장 分別이 되는 것이 入聲이고 아울러 收聲의 鼻音을 帶同한 -n -ŋ -m 陽聲韻들과 入聲의 -p -t -k는 서로 對應關係를 보여준 것이라 보면 -n/-t, -m/-p, -ŋ/-k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것이 變轉現象인 것이다. 古代의 入聲인 -p -t -k의 帶聲韻들은 發音上 平聲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入聲과 對가 되는 平聲으로 크게 兩分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직 上古聲調에 대한 調價가 어떠한 것인가는 分明하지 않으나 지금까지의 說들은 平入 二聲說과 平上去 三聲說과 四聲說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上古의 韻語의 叶韻關係로 보아서는 平入 二聲說이 妥當한 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上古中國語音에 몇개의 聲調가 있었는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聲調의 分別은 있었던 것이다. 詩經의 押韻現象을 보면 現在 平上去 三聲은 詩經內에서 서로 混同되어 押韻되고 있으나 入聲만은 한결같이 同類로 押韻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入聲과 그 外의 다른것(平聲이라 봄)과 크게 區分된 것이라 할 수 있다. 古人들이 그들의 典籍에서 論한 ‘長言’ ‘短言’ ‘緩氣’ ‘急氣’라고 한것은 바로 入聲과의 區分을 論한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23)

中國의 上古語音系統을 考究하자면 聲調의 區分이 重要な 條件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過去의 讀音을 表示하는 말들 가운데 讀若(漢代 說文等)의 例中에는 한 글자의 아래에 몇개의 讀法을 注하고 있고 从某聲, 혹은 讀若某등의 허다한 聲調의 區分을 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陸法言의 切韻序에서는 上古의 各地의 言語가 聲調가 不同한 系

(23) 公羊傳：「春秋伐者爲客，伐者爲主」를 何休注에는 「伐人者爲客，讀伐長音之，齊人語也。見伐者爲主，讀伐短音之，齊人語也」.

淮南子修務篇注：駘，讀似質，緩氣言之者，在舌頭乃得。又墜形篇

注：旄，讀近綢繆之繆，急氣言乃得之。”(高誘注).

여기 長音 短音, 緩氣, 急氣라고 말한 것은 모두 過去의 聲況의 例들이나 이것은 聲調의 區分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統을 이루고 있었음을 말 하고 있어 일찍 中國人들이 聲調에 대한 認識을 하였던 것이다.

中古以前の 四聲은 當時의 聲母에 清濁의 區分이 있어 그를 應用한 輕重, 疾徐, 長短등으로 聲調를 區分하였으며 이러한 區分은 다만 發音의 習慣에 依한 經驗을 中心한 것으로 오늘날처럼 語音의 科學的인 分析에 依據한 것이 아니었다. 聲調의 區分에 있어 音高는 勿論 音量 音勢등 여러가지 要因들을 混合하여 이들을 統括的으로 表現하였던 것으로 過去의 區分法이었다고 할 수 있다. 即 上古聲調는 音高만의 變化 關係로만 測定한 것이 아니고 音에 附隨된 다른 要因들을 兼하여 論하였던 것이다. 聲調를 區分한 名稱을 그들은 五音이라고 부르는 「宮商角徵羽」字를 써서 表示하였다. 이것은 周末以後 音樂과 關係가 깊었던 名稱으로 漢代人들이 常用한 樂律의 名稱이었는데 이것을 聲調의 區分에 借用한 것이라 볼수 있다. 왜냐하면 音樂의 音階의 區分과 마찬가지로 聲調의 音高의 區分도 모두 聽覺的인 作用에 依하여 區分되었기 때문이다 特히 過去人들의 韻文은 音樂의 樂音과 相近한 점이 많았던 것이다. 이러한 五音은 여러가지 音의 要素들이 混在하여 있었던 것이다.

上古聲調에 대한 考究는 의당 語音史를 통한 考察을 해야 할것이고 上古語의 複音節語와 詞尾의 添加등 收尾輔音의 變化등이 字音의 聲調와 어떠한 關係를 가지고 變化를 하였는가 하는 점을 잘 살펴야 할것이다. 그리고 古人들이 聲調를 區別함에 音高를 포함한 모든 音의 音素들과의 關係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古代人들이 表示한 「韻」의 概念이 語音의 一部分인 收音의 音素만 나타낸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聲調까지 包括하고 있는 것이다. 即過去人들이 語音을 表示하는 用語들 가운데 言, 音, 聲, 韻등 여러 글자들을 쓰고 있는 것이다. 特히 聲調를 表示한 말과 關係가 깊은것은 氣자도 자주 써 온 것이다.

以上에서 上古의 聲調는 지금 명확하게 확정해서 알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中國語가 일찍 聲調言語로 發展을 하여온 것이고 古人들도 四聲에 대한 認識을 일찍 가졌던 것이나 몇개의 聲調인가 明確한 區分은 없었던 것이며 크게는 入聲과 이에 대립되는 다른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이것을 平聲이라 보아 兩分되었다고 보는것이 妥當할 것으로 생각하며 陰聲과 陽聲으로 音을 區分한 것과 또 聲母에 清濁의 區分이 있었으므로 清代 古音研究家들이 主張한 二聲說과 三聲說이 모두 可能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入聲의 區分은 明確한 것이므로 이와 대가되는 二聲說로 上古聲調를 理解하는 것이 容易할 것이다.

6. 中古聲調

中古時期的 聲調는 韻書를 中心으로 하여 考察된 것이다. 이미 六朝 永明年間(483~493)에 四聲을 利用하여 韻書를 作하는 方法을 알아내어 그 당시의 聲調는 4개로 區分이 되었던 것이다. 이때 四聲을 確定하게 된 큰 理由로는 佛經을 轉讀하는 影響下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앞에서 이야기 하였다. 即 佛經의 三聲의 影響을 받아 從來 中國人들이 가지고 있던 聲調를 4가지로 區分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의 聲調도 그 調價는 어떠한가 잘 알수가 없는 것이다. 이때의 四聲에 대한 區分도 亦是 音高에 依한 區分만이 아니라 音量 音勢등 여러 要因이 있었다고 할수 있다.⁽²⁴⁾ 이러한 추세는 入聲字들이 다른 音들에 比하여 여전히短促한 區分이 두드러지게 나타 났던 것이며 四聲이 定해지기 이전의 五音을 四聲에 代替한 것이므로 여러 要因이 混在하였던 것이다.

中古音은 切韻이 代表하는 時期를 一般的으로 말하고 있으며 이때 부터 音韻學上 韻書에 依한 體系的인 考察을 할수 있는 것이다. 中國人들이 反切法이란 注音方法을 쓴것은 東漢以後 六朝에 걸쳐 盛行된 것이며 여기에는 佛敎의 影響을 받아 印度의 古代音韻學이 自然中國人들에

(24) 張世祿：中國音韻學史，「四聲的起源」。

게 影響을 주었던 것이고 이것은 中國人들에게 音韻에 關한 論議를 活潑하게 하였던 것이다.⁽²⁵⁾ 여기서 聲調에 큰 影響을 준것은 印度의 聲明論으로 音高에 依한 高低의 區別로 三聲이 있었던 것이며 이 三聲의 方法과 中國人들이 종래 가지고 있던 入聲과는 크게 區分이 되었던 것이므로 이것이 合致되어 새로 四聲을 확정하게 된 것이라 본다.

六朝時 發展된 音韻學은 韻書를 만들게 되었고 韻書가 있는다음 모든 文士들은 詩文을 作함에 韻書를 準用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言語도 많이 整備되었던 것이다. 이당시 사람들은 韻이란 概念에 聲調는 自然的으로 內包되고 있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당시 韻書들의 編纂方法들을 지금 본다면 漢代의 字典類와 다른점이 韻을 中心하여 聲調를 基本單位로 하여 여러 字를 包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方法은 비록 韻書가 作詩의 準則用으로 制作되었다고 하지만 漢代의 字劃의 類似한 部首를 建立하여 字典을 만든 것에 比하여 音을 中心하여 가장 簡便한 排列方法을 찾았으니 여러 수많은 音들 중에서 이들을 共通的으로 通괄하는 最少의 基本的인 單位는 네가지의 聲調였던 것이다. 이러한 4가지 聲調를 基本單位로 하여 韻書를 만들게 되었던 것은 六朝人들의 커다란 發明인 것이다.

上古聲調가 不明確한것에 比하여 中古聲調는 확실한 것이다. 이것은 四聲이 確定되어 이를 基準하여 모든 韻書가 制作되었기 때문에 明確한 것이다. 또 四聲은 平上去入이라는 分類가 確立되었다. 그러나 이들 聲調의 調價가 어떠한가는 아직 큰 疑問이 있으나 記錄上 明白한 區分을 하고 있는 것이다. 中古 以前의 聲調는 五音에 依據한 여러 音의 要素들을 包括하여 混在하였으나 四聲이란 名稱을 쓰고서 부터는 音高에 依한 區分을 해왔다고 볼수 있다.

中古期の 聲調는 六朝代의 韻書가 代表되고 이들 韻書를 集大成한것

(25) 董同龢：漢語音韻學 p. 6.

이 隋代 陸法言의 切韻인 것이다. 切韻이 制作된것은 그 序文에 依하면 仁壽元年(607)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7세기 초기의 作品인 것이다. 中古음이 6~7세기 음인 것으로 이 切韻을 中心한 切韻系 韻書들이 당시 음을 代表하였던 것이고 聲調도 自然 이들이 代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切韻系 韻書로는 唐寫本切韻殘卷五種, 五代刊本殘卷 등이 가장오랜 것이고 唐代에는 唐韻이 이를 직접 이어 받았던 것이고 宋代의 廣韻은 바로 다시 이 切韻系 韻書를 集大成한 것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廣韻을 中心으로 中古음을 研究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 切韻系 韻書를 考察한 結果 聲調를 論한 것을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26)

1. 모두 平上去入으로 分卷하였고 平聲이 너무 많아서 或은 平을 上下로 하여 分卷한 것이었다.
2. 平聲上 26韻, 平聲下 28韻, 합하여 平聲이 54韻, 上聲이 51韻, 去聲이 56韻, 入聲이 32韻 모두 切韻의 韻을 193韻으로 보았다.
3. 切韻에 수록된 글자수는 약 1만 2천자로 이들 글자가 平上去入에 나뉘어 수록된 것이다.

이 切韻系의 四聲이 唐宋元明清으로 내키 오면서 모두 聲調에는 큰 변동이 없이 四聲을 基本으로 삼아 왔던 것이다(元代 周德清 中原音韻부터는 달라짐 참조 후장).

그러면 이들 四聲의 平上去入의 聲調의 調價는 어떠 했을까? 이점은 이미 明確한 測定은 不可能한 것이다. 다만 後人들의 記錄과 現代 方言 等を 利用하여 考察 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 時代的 順序에 따라 論한 것을 보기로 하자.

南史梁書沈約傳：

約撰四聲譜，自謂入神之作，武帝雅不好焉。嘗問周捨曰：何謂四聲，捨曰：天子聖哲是也。然帝意不遵用。

(26) 董同龢：上揭書，p. 80.

여기서 四聲을 「天子聖哲」 네자를 들어 說明을 하고 있으니 이들 글자는 틀림없이 그 當時의 四聲을 代表한 글자이다. 이들 글자의 聲調의 調價는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또 武帝가 中領軍朱異에게 四聲에 관하여 물으니 :

何者名爲四聲, 朱異對曰: 天子萬福即是四聲, 帝曰: 天子壽考豈非四聲耶.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四聲의 例字를 들어 말한 것이다. 이로 보면 이미 그 當時人들은 四聲의 區別을 알았고 武帝 자신은 아직 四聲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서술에서 우리는 四聲이 당시에 쓰여지기 시작한 初期의 현상이며 「平上去入」의 4글자나 「天子聖哲」 네 글자나 모두 單字中에서 例字를 取하여 說明한 것임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勿論 오늘날의 平上去入의 聲調의 調價와 그 당시의 平上去入의 調價와는 同一하게 여길 수는 없는 것이다.

唐代의 元和韻譜에 :

「平聲哀而安, 上聲厲而舉, 去聲清而遠, 入聲直而促.」

여기 서술은 平上去入에 대한 具體的인 例이나 이러한 哀而安, 厲而舉 清而遠등이 果然 어떠한 調價인가는 難解한 것이다. 勿論 唐代의 記錄이므로 切韻系音을 이어 받은 것이나 이들 舉例한 자들의 聲調가 平上去入과 一致하였던 것인지 或은 수식어로 쓴것인지 不明確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哀而安, 厲而舉, 清而遠을 同時代의 入場에서 解說 하였던 것이다.

明代의 釋 眞空의 玉鑰匙歌訣에 :

「平聲平道莫低昂, 上聲高呼猛烈強, 去聲分明哀遠道, 入聲短促急收藏」

이것은 明代의 四聲을 論한 것으로 比較的 더 具體的인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 時期는 中古期에서 먼 거리가 있고 벌써 元代에 들어서서 音

의變化가 있었으니 聲調의 調價는 거리가 있다고 할수 있다.

明末 清初의 顧炎武는 그의 音論에 :

「平聲最長，上去次之，入則絀然而止，無餘音矣。其重其疾，則爲上爲去爲入，其輕其遲則爲平。」

그의 理論은 勿論 古音研究에 專心한 바 聲調에도 깊은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그는 音의 長短과 輕重 疾遲의 區分에 두어 說明하였던 것이다.

또 清代 江永, 段玉裁, 王鳴盛 등 諸人들이 聲調의 調價에 대하여 論하였으나 如前히 明確한 解釋은 없었던 것이다.

勿論 당시의 聲調의 調價를 알기란 막연한 것이다. 그러나 現代의 聲調價와 比較하여 그 大體的인 把握을 하게 되는 것이다. B. Karlgren 도 平上去入의 區分으로 平 橫調舒收, 上 升調舒收, 去 降調舒收, 入 促收로 解釋하고 있다.⁽²⁷⁾ 마찬가지로 聲調의 調價는 알 수 없는 것이다.

以上에서 中古時의 聲調는 韻書를 中心하여 名稱이 確定되어 平上去入의 네가지로 區分이 되었음을 論하였다. 四聲의 確定은 中國音韻學에 있어 하나의 轉期가 된 것이고 이로 부터 14세기에 이르기 까지 큰 變動이 없이 音韻의 一面을 代表하여 온 것이다.

7. 中古時代에서 現代까지의 변화

中古期의 聲調가 現代에 이르기 까지 어떠한 過程을 거쳐서 왔나하는 점을 보기로 하자. 5세기경부터 中國의 聲調는 四聲으로 固定되어 내려 온 것이다. 一般的으로 語音의 變遷에 따라 聲調도 變化를 한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四聲이 確定된 다음 四聲의 調價는 變했으나 四聲의 類名은 變化를 아주 느리게 하여 왔다. 現代 方言을 보면 調價는 아주 複雜하나 聲調의 調類는 基本的으로는 一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調類도 全然 變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가장 먼저 變한것이 上聲중 濁上

(27) Karlgren: 中國音韻學研究, 第16章, ...

이 去聲으로 변하였고 入聲이 消失되어 버렸다. 이것은 中古에서 近代로 오는 過程에서 생긴 것이다. 다음 中古聲調가 現代로 오며 변한 過程을 引用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28)

1) 濁上이 변하여 去聲으로 될것.

中國語音中 中古以前の 聲母가 清音과 濁音이 存在하였으며 이중에서 濁音上聲字들이 가장 먼저 去聲으로 變化하여 갔던 것이다. 그러나 濁聲중에서 全濁上聲字만이 變化를 한것이고 次濁上聲字들은 變化를 하지 않고 그대로 上聲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例字들을 字母別로 보면 다음과 같은 字들이 있는 것이다.

奉：父婦負阜 范範犯憤忿 奉.

定：舵惰墮杜肚 待怠殆 弟道稻淡誕斷 囤盾沌蕩動.

從：坐聚在罪皂造漸踐盡靜.

邪：序緒敍似杞巳象像.

澄：苧柱雉痔趙兆肇紂朕丈仗重

崇：士俟撰饌

船：蕘盾

禪：社豎是氏市恃紹受甚善腎上

羣：巨拒技妓跪舅咎儉件近菌

匣：荷禍下戶亥駭滙浩皓後后厚旱限很項幸

이러한 全濁上聲字들이 去聲으로 변하는데 例外도 없지는 않으나 대체로 한 규를 정할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聲調의 變化는 8세기 이전에 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며 12세기에는 韻書上 濁上이 去聲으로 변한것을 규정하고 있다. 唐代韓愈는 諱辨에서 杜와 度를 同音으로 여겼고 12세기에 이루어진 韻鏡에는 「今遂韻上聲濁位變當呼爲去聲」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現代 方言의 一部地域에서는(吳語의 宜興 無錫 滬山등지역)全濁上聲字들이 변하지 않고 上聲을 保持하고 있고 粵方言에서도 대부분의

(28) 王力：漢語史稿二十九節參照，

全濁上聲字들이 去聲으로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現象은 現代 方言의 聲調가 아직도 中古以前의 體系를 維持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2) 聲調가 陰陽으로 分化된 것.

現代 中國語의 聲調는 平聲이 陰平과 陽平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 理由는 中古의 聲調중 平聲이 分化한 結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分化가 이루어진 것은 14세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韻書의 대표가 中原音韻인 것이다. 中原音韻은 14세기 초(1324)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책에서 처음으로 平聲이 陰陽으로 分化된 것이다. 聲調의 陰陽과 聲母의 清濁은 서로 對應關係가 있어 清音은 平聲에서 陰平으로 되었고 濁音은 平聲字중에서 陽平으로 發展되었다. 이러한 陰陽의 分化는 14세기에 이룩된 것으로 現代 方言에서는 아직 이런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方言聲調는 四聲보다 훨씬 많은 五聲 六聲, 七聲, 八聲, 九聲까지 있다. 이러한 聲調中 八聲이 基本이 된다고 볼 수 있으니 이것은 中古의 四聲이 陰陽으로 나뉘어져 八聲이 되어 陰平 陽平 陰上 陽上 陰去 陽去 陰入 陽入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分化된것은 聲母의 清濁關係와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 陰陽의 區別은 聲調上 高調가 陰이고 低調가 陽인 것이다. 聲母의 清濁關係가 聲調의 陰陽과 關係가 있지만 混雜되고 있어 一律的인 것은 아닌 것이다. 대략 그 關係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清音은 陰調로 읽고 濁音은 陽調로 읽는다. 이런 경우는 現代吳方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古代의 清音이 今音에서는 陰調이고 古代의 濁音이 今音으로는 陽調이다. 이런 현상은 粵 閩 客家 方言에서 나타나고 있다.

聲調의 分化가 聲母의 清濁과 關係가 있는 것을 例를 들어 보면 ‘通’ 他紅切과 ‘同’ 徒紅切은 본래 同一한 聲調였으나 이것이 清濁音의 影響으로 이들 글자는 聲調가 서로 달라진 것이다. 이러한 差異는 처음에는 區

分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점차 現代에 이르러 明確히 區分이 된 것이다.

一般的으로 平聲은 그 元音이 비교적 길게 나서 그 區別이 현저하여 각지의 方言에서도 가장 쉽게 區分되는 것이다.

3) 入聲의 消失

現代 中國語에는 入聲이 없다. 그러므로 現代 中國語를 論하는데는 全然 考慮되지 않는다. 一般的으로 入聲의 消失을 14세기이 전이라고 한다. 그것은 中原音韻이 나오고 나서 北音系韻書에 入聲이 취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中原音韻이 聲調를 平上去로만 區分하였고 入聲字들을 모두 平上去聲에 分配시켜 놓았다. 이것은 現代의 聲調와는 差異를 갖고 있지만 調類는 一致되는 것이다. 中原音韻에 入聲字의 配入된 현상을 보면, 入聲이 平聲으로 들어간것은 오직 陽平으로만 되었고 陰平은 없는 것이다. 多大數의 入聲字들이 上聲에 들어가 있다. 이것은 現代中國語의 聲調에서 보면 入聲이 陰平·陽平·去聲에 많이 들어 가 있는 것과 差異가 있는 것이다. 現代 北京語에는 入聲字들이 去聲으로 된것이 많고 그다음이 陰平이고 上聲에 들어간 것이 가장 적다.

14세기에 들어와 北音系の 入聲은 아주 규칙적으로 변하였던 것이다. 中原音韻에 依據하면 全濁이 陽平으로 次濁이 去聲으로 되었다. 이점은 現代 北京語와 一致되는 것이다.

方言中 西南官話의 入聲도 現在는 消失되었다. 이들 入聲은 一律的으로 陽平에 歸入되고 있다. 이것은 現代 國語와 다르다. 그러나 이들 入聲의 調價는 각각 다르다. 예를 들면 長沙地方의 入聲도 北平의 陽平和 같은 調價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聲調의 調價는 이미 中古入聲의 特性을 잃고 있는 것이며 다만 入聲의 系統만을 保持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 中古에서 現代까지 이르기엔 中國의 聲調는 크게 變化를 한 것이다. 聲調를 말하는 名稱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聲調의 調價는 크게 변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平聲이 分化하고 入聲이 消失된 것이며

이 시기가 14세기에 들어와서 北方의 官話地域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로 因하여 中國語는 다시 한 轉換期를 맞은 것이라 볼수 있다.

中古에서 現代에 이르는 동안 聲調의 變化過程을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29)

調 \	平	上	去	入
清	ㄱ	ㄴ		ㄱ ㄴ ㄴ ㄱ
次濁	ㄱ		ㄴ	ㄴ
全濁			ㄴ	ㄱ ㄴ

1. 平聲清聲母字 → 陰平
平聲濁聲母字 → 陽平
2. 上聲清聲母, 次濁母字 → 上
上聲全濁聲母字 → 去
3. 去聲全 → 去
4. 入聲次濁字 → 去
入聲全濁字 → 陽平(大部分)
→ 去(小數)
入聲清聲母字 → 陰平·陽平·上·去(不規則的)

8. 現代 聲 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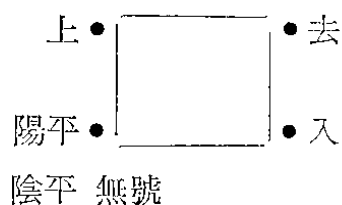
現代 中國語의 聲調가 넷이 있음은 잘 알고 있는 일이며 이 4개의 聲調를 흔히 四聲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 名稱은 이미 近 1,500년동안 써온것으로 낯익은 用語인 것이다. 그러나 現代 中國語에서만 4개이

(29) 董同龢：漢語音韻學，p. 235.

지 다른 方言에는 10개의 聲調를 가진 곳도 있으며 주로 長江以南의 地域에서는 거의 다 入聲을 갖고 있으며 五聲이상의 聲調가 남아있다. 먼저 「國語」의 聲調를 살핀 다음 方言의 聲調를 보기로 하자.

國語(標準語)의 聲調

現代中國語聲調에 대한 制定은 民國年間に 들어와서 國語統一運動의 一環으로 民國 7年(1918) 11月 13日 教育部에서 「注音字母」를 正式으로 公布하여 使用하게 된 것이 하나의 基點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에 中國語音을 聲母 24, 介母 3, 韻母 13, 濁音符號(’) 四聲點法(다음 圖 參照)을 制定施行케 한 것이다.



원래 이러한 方法은 民國元年 「讀音統一會」에서 約定한 것으로 傳統的으로 써오던 圈破法⁽³⁰⁾을 改良하여 圈號(○)를 小圈點(•)으로 바꾼 것에 不過한 것이다.

이때 四聲은 讀法이 陰平을 無號로 한 것까지 計算에 넣는다면 入聲까지 五聲을 썼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入聲은 標準國語에서는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實際로는 無用之物이 되었던 것이다.

民國 9年(1920)에는 汪怡의 改革案과 錢玄同의 點聲法을 쓰지 말자는 主張이 있어서 다시 教育部에서는 四聲에 拘碍되지 말 것을 決議하였고 그 다음 다시 黎錦暉의 四角點聲法이 橫書時에 不便하여 符號를 쓰기로 하였다. 即:

陰平은 無號(重讀, 延長時는 一로)

陽平: /

(30) 圈破法: 唐代부터 一般的으로 流行된 것으로 漢字의 네 귀에 圈點(○)을 찍어 四聲을 표시하는 방법.

上: V

去: \

入: ·

이러한 表記는 漢字를 書寫하는데 便利하게 改良되어 民國 20 年(1931) 教育部의 國語統一籌備委員會에서 다시 「國音字母單張」을 刊行함에 縱書할때는 末一音의 右上角에 符號를 表記토록 한 것이다.

現代의 四聲은 北平音의 聲調를 中心으로 定해진 것이며 理論의 根據가 된 參考文들은 三璞의 「中華國音留聲機片」, 趙元任의 「國語留聲機片」 劉復의 「四聲實驗錄」등으로 이들은 現代 言語學의 理論으로 中國語의 聲調를 科學的으로 分析考究한 것이다.

民國 30 年(1941)에 公布된 現代音의 基本韻書인 中華新韻에는 聲調表示方法을 定하고 있으니 注音符號의 條例에 依據하여 韻符의 右上角에 달기로 하였다.

即, 陰平	無號	Y
陽平		Y'
上		Y ^V
去		Y [\]
入		Y [·]

聲調符號는 5개로 그중에서 하나는 平常 使用하지 않으며 國語에서는 □表를 加하여 入聲을 表示하고 있다.

陰平	□	(無號)
陽平	□'	
上	□ ^V	
去	□ [\]	
入	□ [·]	

陰平은 平常時는 符號를 쓰지 않고 入聲은 國語에서는 平上去에 들어

가 있고 入聲을 꼭 표시할 경우만 入聲符號를 쓰고 있는 것이다. (31)

現在는 陰平符號를 (一)을 쓰고 있어 陰平 一, 陽平 /, 上 V, 去 \의 4개로 쓰고 輕聲을 (·)으로 표시하고 있다.

現用하는 4개의 聲調를 그 類名, 調價, 符號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類名	調價	符號
陰平(第一聲)	高平(5.5)	一(一)
陽平(第二聲)	高升(3.5)	一(/)
上(第三聲)	降升(2.1.4.)(3.1.5)	ㄴ(V)
去(第四聲)	全降(5.1)	ㄴ(\)

陰平·陽平·上·去는 傳統的인 四聲인 平上去에서 沿用하여 쓰는 것이고 一般的으로는 一聲, 二聲, 三聲, 四聲이라 많이 쓴다. 또 1, 2, 3, 4의 數字로 표기도 한다.

聲調의 調價

現代의 四聲은 때로는 그 意味가 廣義로 中國의 方言聲調를 포괄하여 말하는 경우도 있다. 國語의 四聲은 4개로 區分되어 있고 方言에서는 많은것은 10개도 되는 것이 있다.

國語의 聲調가 北平의 聲調를 基本으로하여 넷으로 나뉘어 陰平·陽平·上·去로 하였으니 이들 聲調간의 差異가 어떤 것인지 即 서로 다른 音位의 高低의 差異를 調價라 한다면 이 4가지 聲調의 調價는 어떠한가? 聲調의 差異는 音聲의 여러가지 要素들에 依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보나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이 音高(pitch)로 한 音節중 基本音의 高低의 差異로 이것은 聲帶의 振動數와 時間과 함수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音高는 音이 形成될때 聲帶가 振動되는 振動律의 數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差異가 생기는 것이며 振動數가 많은 것이 높고 적은것이 낮다. 一般語音중에는 濁音중에서는 自然的으로 이러한 區分이 되고 中國語의 경

(31) 中華新韻 : p. 18.

우는 一般的으로 音高를 區分하는데 元音과 소수의 鼻音·頭音·邊音·濁擦音이 音節을 이룰때 그 主體가 되는 것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即 聲調가 다른 聲母와의 關係는 어떠한가 하는것으로 이것은 音素論으로 音韻學에서 重視되고 있는 것이다. 그 顯著한 關係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不送氣音의 塞音과 塞擦音이 陽聲韻(-n, -ŋ)에서는 陽平調는 없고 陰聲韻안의 陽平調字들은 모두 中古의 入聲에서 變化되어 온 것이다.

2. 濁音聲母의 各類에는 陰平調의 字들이 없다. 그러나 약간의 象聲字와 口語의 少數字는 例外가 있다.(媽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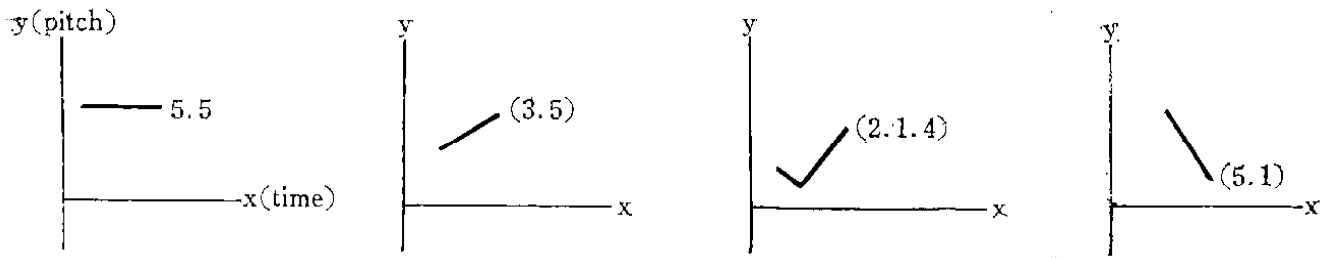
3. s音이 開口韻에 있는 경우 陽平調의 字는 없다. 다만 合口韻에만 있다. 또 中國의 모든 音節이 4가지의 聲調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音節은 한가지 聲調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給 [gei³]). 그리고 同一한 글자가 서로 다른 聲調를 나타 내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意味의 區別을 가져오게 된다. (32)

다시 聲帶의 振動數를 보면 每秒當 100 이하가 가장 느린것이고 빠르면 1,000번 좌우가 된다. 한 音節이 처음부터 끝까지 느리게 혹은 빠르게 變化를 하는것이며 이에 따라 音의 絕對高度는 彼此 많은 差異를 갖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音高는 每字의 絕對音高가 아니고 音高變化時의 相對的인 音高인 것이다. (33)

現代 聲調의 音高를 求하는 方法으로 趙元任先生의 “五點制”를 채택하고 있으나 各種聲調의 高低를 “低, 半低, 中, 半高, 高”의 5가지로 區分하여 相對的 音高를 表示하여 標準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音高의 變化形態를 平, 升, 降, 降升, 升降의 名稱을 부치고 있는 것이다. 다음 音高를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32) 董同龢：漢語音韻學，p. 23.

(33) 趙元任：前揭書，「四聲」.



이러한 表示方法은 音의 高低를 度數로 나타낸 것으로 趙元任의 五度 表示法에 準한 것이다. 或 上聲表示에 있어 度數를(3.1.5)로 한 경우도 있다(董同龢).

陰平(第一聲) [5.5] 발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높고 긴 음을 낸다.

陽平(第二聲) [3.5] 발음이 처음에 좀 낮은곳에서 높은 곳으로 내며 一聲보다 짧게 발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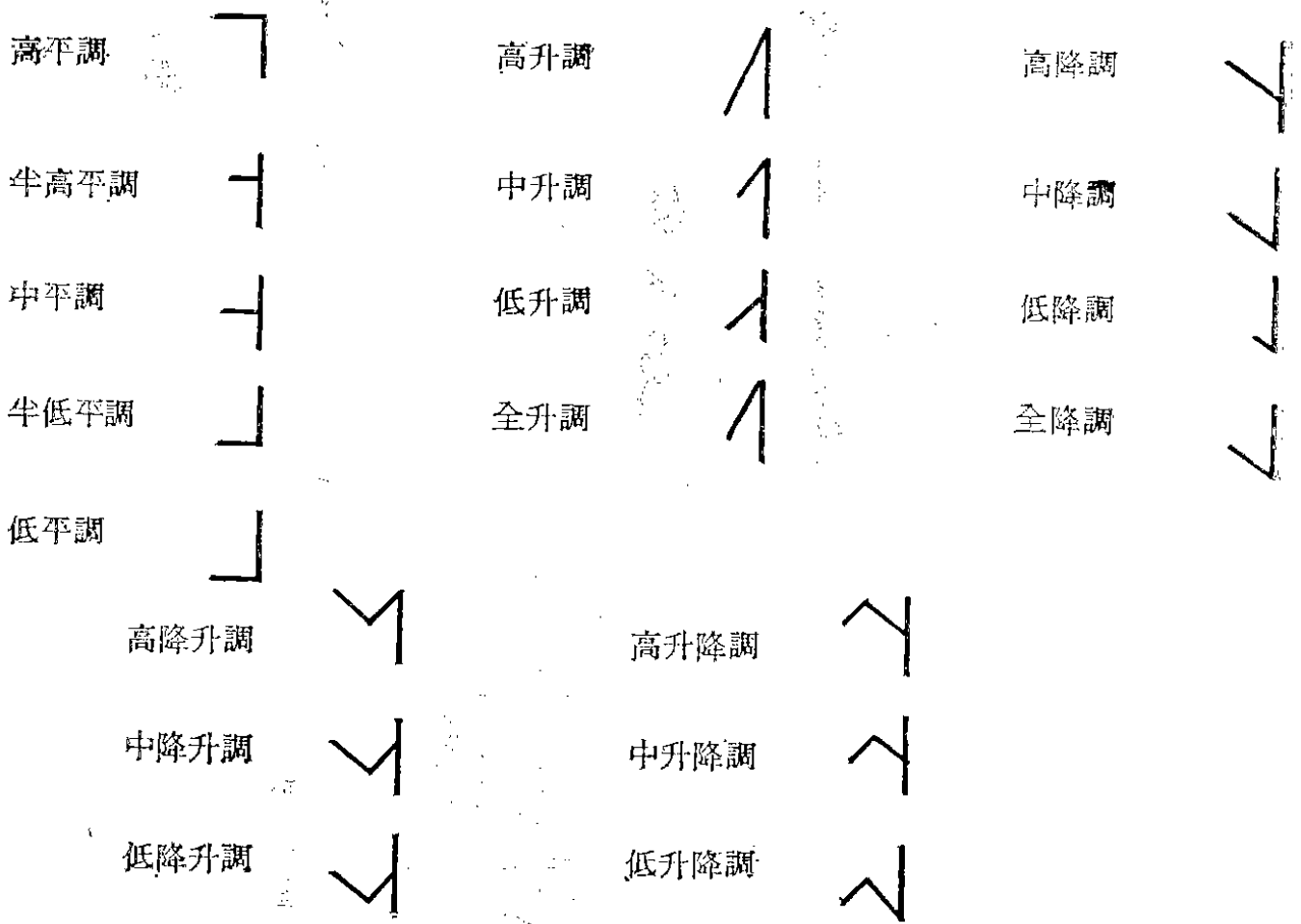
上(第三聲) [2.1.4] 발음이 낮은 음에서 시작되어 하나 더 낮은 음으로 내려 갔다가 다시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굴곡을 이루고 음은 二聲보다 길어 一聲에 가깝다.

去(第四聲) [51]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짧게 낸다. 시간은 二聲과 비슷하다.

이러한 表示方法은 絶對的인 것이 아닌것이며 다만 그 基準을 삼는것이다. 音高의 變化形態를 더 자세히 分化한 부호를 보면 다음과 같다. (34)

편리하게 數字로 表示하면 低=1, 半低=2, 中=3, 半高=4, 高=5도로 하고있는 것이다.

(34) 董同龢 : 上揚書, p. 328.



變 調

一般的으로 聲調란 字調로 單字의 聲調만을 가르켜 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言語는 몇개의 單字들이 모여서 句와 文을 만들고 있으므로 國語의 詞類에도 調가 있게 되고 이것을 詞調라 稱하고 이 詞調는 字調에 影響을 주어 字의 聲調를 變化시키니 이것을 ‘變調’라고 하며 또한 다른 명칭으로 ‘連調變化’ ‘連音變化’라 하는 것이다. 現中國語의 變調는 크게 두가지로 區分이되고 있으니 하나는 ‘半上’이고 하나는 ‘輕聲’인 것이다.

半上聲의 表示는 特別한 符號를 쓰지 않으나 輕聲은 글자에 「·」의 符號를 加하여 表示키로 하였다.⁽³⁵⁾ 半上聲은 輕聲에 比하여 注意를 하지 않아도 관찮으나 輕聲은 注意를 必要로 한다. 왜냐하면 輕聲은 詞意의

(35) 參照 中華新韻.

分辨에 있어 하나의 要因이 되기 때문이다. 卽 한 詞類가 字形과 字音이 相同할때 오직 輕聲에 依하여 區分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例를 들면 「老子」와 「老子」의 區分은 前者는 人名或은 書名인데 後者는 父親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 意味의 區分은 오직 輕聲이란 差異가 있는 것 뿐인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오직 口語에서만 區分이되고 있는 것이다. 몇가지 더 보면 簾子와 蓮子, 瞎子와 蝦子, 舌頭와 蛇頭 등은 口語에 있어서 相同한 音이나 다만 子와 頭를 輕聲으로 읽어 詞意가 區分되고 있는 것이다. 特히 文言과 口語의 差異에 있어 輕聲은 重要한 役割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輕聲은 外國人이 말하는 경우에 있어 區分하기가 容易한 것이 아니다.

現代 方言中 「國語」는 聲調의 變化가 가장 簡單한 것이다. 아직도 方言中에는 複雜한 連音變化를 하고 있는곳도 있다. 現國語에서는 陰平 陽平 去聲은 거의 變化가 없고 上聲의 變化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去聲의 變化에 관하여서 趙元任은 去聲+去聲→5.1+5.1→5.3+5.1로 된다고 하였으나 후에 이 설을 수정하여 두글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詞를 발음 할때 첫째 글자는 뒤의 것 보다 좀 輕하게 읽게된다고 하였다.⁽³⁶⁾ 이러한 現象은 去聲의 경우만이 아니고 다른 聲들이 연결될 때 도 同一한 現象인 것이다.

그러므로 北平話(國語)에서 變化가 가장 많은것은 上聲으로 上聲의 調價를 2.1.4로 할때 변조는 2.1까지만 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2.1로 발음하고 나머지 4로 올리지 않기 때문에 ‘半上聲’이라 명명한 것이다. 音位上 2.1과 2.1.4는 同一한 音位下에 두개의 音位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上聲다음에 陰平·陽平·去聲이 相連될때 上聲의 調價는 그 音位가 2.1까지만 발음된다. 그러나 上聲과 上聲이 相連될때는 앞의 上聲은 陽

(36) 趙元任：前掲書「四聲」.

平이 되어 3.5가 되고 있다.

이러한 變化는 音位論과 詞素論上 하나의 문제를 주게 된다. 즉 上聲의 경우 그 音位의 加變範圍가 2.1.4. 21. 3.5인 것이라 할때 이들과 결합된 詞와의 관계에 있어 詞素를 論하게 되면 複雜한 現象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上聲의 調價는 2.1, 2.1.4로 하고 3.5인 경우는 獨立된 陽平으로 계산하면 音位上 混亂은 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音位와 衝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變化 이외에 單呼詞(誤 ε), 母(m)는 경우에 따라서 陰平 去聲이 되나 中性으로 보아 四聲이 없다고 본다.

方言中 廣東話나 北平話에서는 比較的 連調變化가 적다. 그러나 福建 江蘇 浙江등 吳語區域, 太湖區域에서는 그 變化가 심하다. 蘇州話의 예를 보면 ‘吃飯’의 吃는 陰入이고 飯은 陽去로 吃[tc'ia³]는 높고 飯[vev]은 낮다. 이것이 연결되면 [tc'ia³ vev]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tc'ia³ lvev]로 되고 있다. 그 까닭은 ‘吃’가 清音이고 ‘飯’은 濁音이라 이것이 결합되면 전체의 調는 陰去가 되고 이 陰去는 蘇州에서 調價가 5.1.3으로 下降하다 다시 上昇하는 調로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連調變化(連音變化)(tone sandhi)로 이러한 變調가 가장 심한 것은 中國의 方言中 廈門話인 것이다.

輕聲은 주로 詞尾의 助詞로 疑問 肯定語氣 動詞詞尾 名詞詞尾로 嗎, 吶, 啊, 子, 頭 등 모두 輕讀하고 있다. 이들 글자는 四聲의 어느 한 聲調로 읽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輕聲의 實際的인 音高는 中調인 3에 해당되고 있다. 또 四聲을 가진 詞素는 어떤 경우에 所有하고 있는 聲調로 읽지 않고 輕聲으로 읽고 있는 경우가 있다. 即 ‘出來’의 來는 陽平으로 읽지 않고 ‘奶奶’의 뒤 奶를 上聲으로 읽지 않고 輕聲으로 읽는다. 이런것은 모두가 詞素論에서 다룰 문제인 것이다. 輕聲으로 읽는 助詞·詞尾·單呼詞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聲調가 어떻게 演變을 하였

나하는 점은 지금 잘 알수가 없는 것이다.

現代方言의 聲調

中國의 方言은 雜多하게 많으나 오늘날 크게 몇 方言區域으로 나누니 大概 11개로 나누고 있다. (37) 中國의 各地方의 方言調查가 實施된 것은 近年의 일로 주로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의 言語組에서 着手한 것이 科學的인 方法을 써서 方言調查表를 만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雜多한 方言이 많아 完成된 것은 아니다. 여기서 論하는 方言의 聲調는 董同龢의 漢語音韻學에 依據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注意를 해둘것은 聲調의 調價의 變動이 聲調 類名과 關

方言	調名 調數	平		上		去		入	
		陰平	陽平	陰上	陽上	陰去	陽去	陰入	中入 陽入
國語	4	ㄉ	㄀	ㄅ		ㄆ			
下江官話 (南京)	5	ㄆ	㄀	ㄅ		ㄆ		ㄇ	
西南官話 (長沙)	5	ㄉ	ㄆ	ㄅ		ㄆ		ㄇ	
吳語 (蘇州)	6	ㄅ	㄀	ㄅ		ㄆ	ㄇ	ㄇ	
粵語 (廣州)	7	ㄉ	㄀	ㄅ		ㄆ	ㄇ	ㄇ	ㄇ
客家話 (梅縣)	9	ㄅ	㄀	ㄅ		ㄆ	ㄇ	ㄇ	ㄇ
閩北 (福州)	6	ㄉ	㄀	ㄅ		ㄆ	ㄇ	ㄇ	ㄇ
閩南 (廈門)	7	ㄅ	㄀	ㄅ		ㄆ	ㄇ	ㄇ	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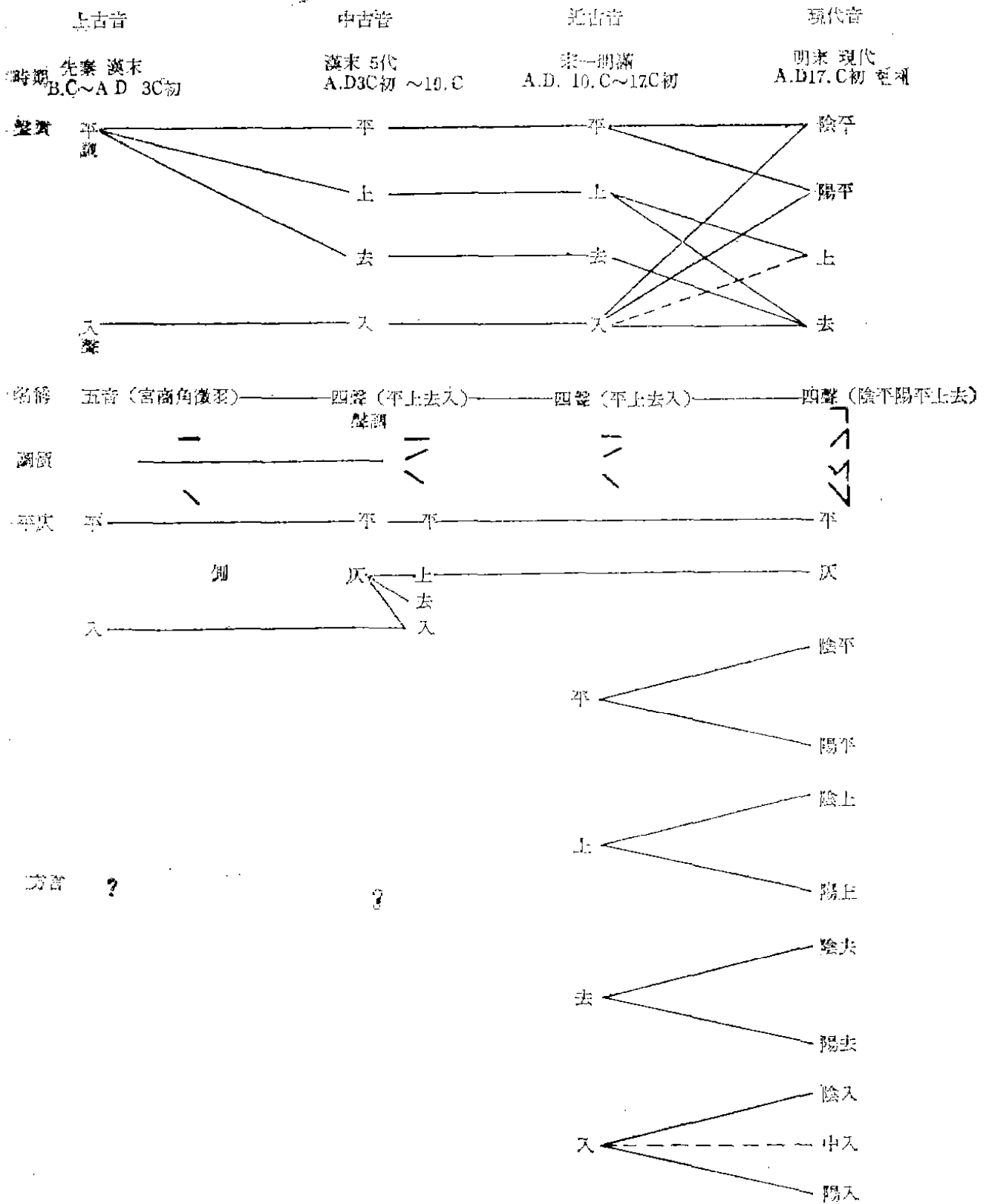
(37) 董同龢：漢語音韻學， p.11.

係가 없다는 것이다. 이점은 타로 古代 聲調의 類名과 調價를 理解하는데 必要할 것이다. 우리는 왕왕히 四聲이란 平上去入에 얽매여 調價도 이와같은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기 쉬운 것이다.

以上の 圖表에서 볼수 있드시 같은 陰平의 聲調라도 各方言에 따라서 그 調價는 여러가지 다른 現象을 보이고 있다. 例를 들면 現代國語의 陰平이 下江官話의 入聲과 같은 調價를 갖고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아는 入聲이라고 할때 그 音이 짧게 낮게 난다는 見解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平聲이라고 하여 그 音이 평평히 길게 나는 것도 아닌 것이다. 卽 聲調도 時地에 따라 많은 變化를 해온 것이다. 그러므로 現代國語의 四聲과 比較를 할때 많은 混同을 하게 되는 것이다.

9. 結 語

聲調의 變化 要因은 聲母 韻母와 密接한 關係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演變中 커다란 區分이 된것은 中國語의 聲調가 佛敎의 影響으로 齊梁間에 四聲이 確立된 것이고, 그 다음 南北音의 相異한 變化로 14세기전 北音系列에서 入聲이 消失되어 現代의 四聲으로 變化한 것이라 볼수 있다. 中古以後에 聲母의 清濁關係로 다시 調聲는 分化하여 現在의 方言聲調와 같은 現象을 이루었고 北音系 聲調가 現代 標準語로 確定되며 現代中國語의 四聲을 이룬 것이다. 다음과 같이 그 過程을 要略할 수 있으니 이것을 結語로 代身하는 바이다.



〈附錄〉

中國方言聲調比較表

方言 調類 調價 調數	古聲調名		平		上		去		入	
	聲母清濁		清	濁	清	濁	清	濁	清	濁
			全	次	次	全	次	全	次	全
(標準語) 北京	4	陰平 55	陽平 35	上聲 214(315)		去聲 51				
(河南) 開封	4	陰平 24	陽平 41	上聲 55		去聲 31				
揚州	5	陰平 21	陽平 35	上聲 42		去聲 213		入聲 3		
(貴州) 貴陽	4	陰平 55	陽平 31	上聲 42		去聲 13				
(廣西) 桂林	4	陰平 44	陽平 21	上聲 54		去聲 213				
(吳語) 蘇州	7	陰平 44	陽平 24	上聲 41		陰去 513	陽去 331	陰入 14	陽入 23	
溫州	8	陰平 44	陽平 31	陰上 54	陽上 24					
(湖南) 長沙	6	陰平 33	陽平 13	上聲 41		陰去 55	陽去 21	入聲 24		
雙峰	5	陰平 55	陽平 23	上聲 21		陰去 35	陽去 33			
(江西) 南昌	6	陰平 42	陽平 35	上聲 31		陰去 55	陽去 31	入聲 5		
(客家語) 梅縣	6	陰平 44	陽平 11	上聲 31		去聲 42		陰入 21	陽入 4	
(粵語) 廣州	9	陰平 55	陽平 21	陰上 35	陽上 13	陰去 33	陽去 22	陰入 5.33	中入 2 陽入 22	
(閩北語) 福州	7	陰平 44	陽平 52	上聲 31		陽去 213	陰去 242	陽入 23	陽入 4	
(閩南語) 廈門	7	陰平 55	陽平 24	上聲 51		陽去 11	陰去 33	陽入 32	陽入 5	
潮州	8	陰平 33	陽平 55	陰上 53	陽上 35	陽去 214	陰去 11	陰入 31	陽入 4	